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아위였지만 형형한 눈빛 등 입제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결사 대중들의 모습은 지난 3개월간 치열하게 정진했음을 보여줬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결사 대중들. 남수연 기자

“일념삼매 없이 깨달음도 없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해제 법어서 정진 당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2월8일 동안거 해제에 맞아 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세월의 흐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속으로 느껴진다”며 “내일, 모래로 미루다가는 백발이 되고, 눈과 귀가 멀어지므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해제일인 지금 재발심과 대분심으로 정진의 끈을 놓지 말고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중국 선종 8대 조사인 마조 도일 선사 일화를 인용하며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신 광대무변한 진리의 법은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제(未來際)가 다해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99개 선원에서 196명이 정진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기해년 동안거 선사방향록’에 의하면 총립 8곳, 비구 선원 58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각각 276명, 1049명, 641명의 대중이 응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한국불교중흥 발원 위례천막결사 90일 대장정 회향

2월7일 상월선원서 회향법회...정진대중 아위였지만 눈빛 형형 상월선원 밖으로 첫발 내디디며 삼천대전세계 향한 감사 삼배 진제 스님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중생구제에 매진하자” 당부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목숨 건 정진을 진행했던 9명 스님들의 위례천막결사가 2월7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11일 동안거 입제에 든 지 90여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 상월선원 주지 원명 스님과 총도감 해일 스님이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11월11일 철문이 닫힌 후 90일 만에 열리는 순간이었다.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천막법당 안으로 들어가자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에게 천막법당 내부를 소개했다. 이어 종정스님은 천막법당 내부에서 정진 대중을 향한 법문을 통해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중생구제에 매진하자”고 당부

했다. 이어 위례천막결사 정진 대중들은 불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나둘 상월선원 밖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 아위였지만 형형한 눈빛 등 입제법회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결사 대중들의 모습은 지난 3개월간의 정진이 치열했음을 보여줬다. 문이 열리고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정진 대중들은 가장 먼저 삼천대전세계를 향한 감사와 발원의 삼배를 올렸다. 이어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정진 대중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했고, 대중들이 운집한 상월선원 법당으로 향했다. 이날 위례천막결사 회향법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여파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당초 상월선원 외호대중들은 생사를 돌보지 않는 수행결사를 진행했던 아홉 스님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 중흥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여법한 해제법회를 준비했다. 해제법회에는 전국에서 10만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상월선원 외호대중들은 2월4일 성대하게 진행하려던 회향법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불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회향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원스님들을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종회의장 범해,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교구본사주지, 중앙총무기과 부실장·국장, 종회의원 등 200여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또 상월선원 외호대중의 만류에도 “대한민국의 화합과 온 세상의 평화,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며 어렵고 힘든 고항의 길을 걸었던 아홉 스님”을 진경하고자 이곳을 찾는 불자들도 적지 않았다. 법당을 찾은 결

사 대중들이 화엄사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진 상월선원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회향식은 마무리됐다.

9명 스님들이 3개월간 진행한 위례천막결사는 순한 화제가 됐다. 한국불교사에서 불교의 변화와 개혁을 발원한 역대 선지식들이 산중사찰에서 결사를 진행한 적은 많지만 도심 법당에 천막법당을 짓고 결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선원에서 정진하던 수좌뿐 아니라 오랫동안 중무행정을 담당해 온 스님들이 “동안거 한철만이라도 승가본연의 모습으로 살아보자”고 의기투합해 새로운 형태의 안거를 진행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여기에 ‘천막하나에 의지해 흑한에 맞서고, 옷 한 벌만 입고 씻지도 머리도 깎지 않으면서 묵언에 하루 한 끼만을 공양하며 매일 14시간 이상 정진하겠다’는 서슬 퍼런 청규는 현대한국 불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에 위례천막결사가 진행된 3개

월간 상월선원은 불교계뿐 아니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월선원에는 매일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찾아 기도정진을 이어가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쇄신’의 길에 동참했다. 3개월 동안 상월선원을 찾은 기도객수만 1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에는 철야정진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상월선원 천막법당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체험관에서 천막결사 대중들과 함께 정진했던 불자도 110명에 달했다. 때문에 위례천막결사는 산중사찰에서만 머물던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일신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회향법회를 끝으로 3개월간의 위례천막결사는 회향했다. “수행자 본연으로 돌아가 치열한 정진으로 한국불교를 변화시켜 보자”는 자승,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도림, 재현, 인산 스님의 굳은 결기로 비롯된 위례천막결사는 현대 한국불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련기사 2.3면 위례=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교도소·군법당에 법보시를
 010-4655-7010 문자
 ‘법보시’ 보내주세요

교도소, 병원법당, 군법당에 법보신문을 보내는 법보시캠페인을 전개합니다. 010-4655-7010으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한 장의 신문물 통해 수용인, 군인, 환우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심시일반 참여로 정도세상을 만들어가는 법보시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1구좌 2부월 1만원
- 문의 : 02)725-7010

성해 법상스님과 함께하는 천수대다라니 108독 성취기도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여래불의 영험이 깃든 해남 대흥사에서 기도성취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봉행합니다. 천수대다라니 기도를 통해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8시30분
 장소: 대흥사 보현전



- * 참가자에게는 오후 4시부터 국수공양이 제공됩니다.
- * 천수대다라니 기도를 빠지지 않고 10회와 21회 참석한 불자님에게는 주지스님이 특별 제작한 단주와 108염주를 증정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합장

